

배포 2026. 7. 22.(수)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7. 22.(수) 12:00
 (지 면) 2026. 7. 23.(목) 조간

2026년 여름방학 초등돌봄·교육을 지속 운영하여 학부모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 '26년 여름방학 초등 돌봄 교육 참여 학생은 97.2만 명으로 '25년 대비 4.2만 명 증가
- 교육부-시도교육청, 방학 중 촘촘한 돌봄·교육 지원으로 학부모 돌봄 부담 완화
- 【관련 국정과제】 101-2.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여름방학을 맞아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통해, ①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 등을 통한 방과후 교육 지원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학기뿐만 아니라 방학 때에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방학 중에도 여건에 맞게 초등돌봄교육을 운영해 왔다. 올해 여름방학에는 초1~6학생 97.2만 명이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 2025년 여름방학 대비 약 4.2만 명 증가*한 규모이다. 작년 대비 희망 학생이 증가한 것을 통해, 돌봄 교육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초1~6 참여학생: ('25.여름.) 93.0만 명 → ('26.여름) 97.2만 명(전년 대비 4.2만명↑)
 초3 참여학생: ('25.여름) 15.3만 명 → ('26.여름) 17.8만 명(전년 대비 2.5만명↑)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방학 중 초등돌봄 교육 우수모델' 공모 사업을 진행하여, 충남 예산군, 광주전남 영광군 등 17개 시군구(230교 참여)를 선정하였다. 해당 지역에서는 여름방학부터 학교·지역의 돌봄기관과 연계해 전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방학 중 돌봄 교육 참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간식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 2026년 방학 중 초등돌봄 교육 우수모델 지원 사업 선정 시군구 >

구분	시군구명
수도·강원권	경기 연천군, 서울 영등포구, 인천 옹진군,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영남권	울산 울주군, 대구 군위군, 대구 달성군, 경북 의성군
호남·제주권	전남 영광군, 전북 진안군, 전북 순창군, 전북 부안군, 제주특별자치도
충청권	충남 예산군, 충북 진천군, 충남 논산시

※ (예산군) 방학 기간에 비해 돌봄교실 운영 기간이 짧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지역사회가 함께 해소 (영광군) ^{학교}오전·오후, ^{지역 아동센터}오후·저녁 중심으로 역할 분담 및 센터별 특색 교육 프로그램 운영(주3회)

또한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지원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교육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활용해 방학 중 특색 프로그램 무상제공,
 ▲ 방학 중 희망 학생에게 급간식 지원, ▲ 지역대학과 연계한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운영한다.

< 지역별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지원 사례 요약 >

- 광주전남교육청	: 지역대학 연계 AI·디지털 미래 특화 프로그램 및 생태 프로그램 제공
- 부산교육청	: 온동네 돌봄교육센터(3개소)에서 오전 시간에 AI·문예체 등 특색 프로그램 제공(오후는 학기중과 동일하게 운영)
- 대전교육청	: 방학 중 희망학생에게 급·간식을 제공하고, 돌봄교실 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경기교육청	: 온동네 돌봄교육센터(35개소)에서 ①돌봄 운영(09-17시), ②특별 프로그램 추가확대 운영

교육부는 지난번 교육부 차관 주재로 개최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26.6.23.)를 통해, 여름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운영 방향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희망 학생이 초등돌봄·교육 프로그램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선도 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확대, ▲지역 돌봄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개설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현장 지원을 이어간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7월 27일(월)부터 '방학 중 틈새돌봄'을 운영한다. 초등학생은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에서 중식·석식 등을 이용하는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7월 23일(목)부터 대표전화 1522-1318와 국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에서 이용 신청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방학은 학생과 학부모의 돌봄 공백 우려가 더욱 커지는 시기인 만큼, 희망하는 학생이 필요한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지역별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운영 사례

담당 부서	학생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효신 (044-203-6600)
		담당자	사무관	박민지 (044-203-6604)
			사무관	홍용환 (044-203-6606)
			교육연구사	강동훈 (044-203-6607)
			주무관	서보승 (044-203-6533)

□ **[유형1]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확대**

- 경남** 희망학교에서 학기 중 돌봄 참여 학생에 더하여 방학 중 돌봄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도 방학 중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돌봄 참여 학생에게 중식 도시락 무상 지원
- 대전** 희망 학교에서 방학 중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급간식을 제공하고, 방학 중 돌봄교실 내 특기적성 프로그램 확대 운영(학기 중 일 1개 → 방학 중 일 3개)
- 제주** 희망 학교를 중심으로 방학 중 돌봄교실 연장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위촉, 특별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 수당 등 실소요액 지원
- 전남** 방학 중 돌봄교실 확대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에게 필요 자원을 지원하고, '행복도시락' 지원 사업을 통해 돌봄교실 참여 학생 대상 도시락 등 무상 제공

□ **[유형2] 지역 돌봄기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연계 강화**

- 서울** '온동네가 함께하는 초등 방과후 배움터'를 운영하여 도서관·평생학습관·거점형 키움센터·청소년센터 등 지역 기관에서 주중·주말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37종)을 제공
- 전남** 지역 아동센터 연계를 통해 방학 중 학교 밖 돌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나주함평·영암 등)하고, 그 외 지역 기관과 연계한 주말 돌봄·교육 프로그램(목포·여수·보성 등) 제공
- 부산** 방학 중 온동네 돌봄·교육센터(3개소)에서 오전시간 중심으로 AI, 문예체 등 특색 프로그램 무상 제공하고, 오후 시간은 맞춤형·방과후 등 프로그램 운영
- 경기** 방학 중 온동네 돌봄·교육센터(35개소)에서 ①상시·종일 돌봄 운영(09-17시), ②학기 중 운영이 어려웠던 특별 프로그램도 방학 중 추가·확대 운영

□ **[유형3]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방학 중 특화 프로그램 운영**

- 광주**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방학 중 AI·디지털, 창의과학, 환경·생태 등 미래 신수요 분야 대응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제공
- 인천** 지역 내 청소년센터와 연계하여 방학 중 토요 교육프로그램(①환경·요리 등 진로체험형, ②원예 등 가족체험형) 제공
- 경남** 대학 연계 기반의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한국장학재단 예산 지원)을 통해 대학생 참여 및 양질의 돌봄·교육 프로그램 제공
- 세종** 학교 수요조사를 거쳐 방학 중 학교로 찾아가는 특색있는 캠프 프로그램 운영 지원(교육청에서 강사비, 협력교원 수당, 교재 교구 등 일괄 지원)